

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제 목	2018학년도 3차 등록금 심의위원회	일시	2018.01.18.(금) 14:00-17:00
		장소	K동 206호
안 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예산에 대한 질의응답 2. 등록금심의위원회 요청자료에 대한 질의응답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사가 외부위원을 소개하고 위원간에 인사를 나눔 - 위원장 : 학생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취합하고, 검토 할 사항들이 있어서 늦어지고 있다고 함. - (세종)총학생회장 : 2차 회의 때 등심위 개최 3일 전까지 제출하겠다고 합의된 사항이라고 함. 요구자료 10가지 중 '2018학년도 가예산안' 밖에 수령하지 못했다고 함. - 위원장 : 부분적으로 준비되는 데로 오늘 중으로 취합해서 내일이나 월요일까지 전달하겠다고 함. - (세종)총학생회장 : 작년도 합의사항에 세종 기숙사 2인실 시범운영이 있는데, 모르는 사이에 이미 4인실로 신입생 배정 공지가 났다고 함.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 함. 또한, 그런 사항을 총학생회장인 본인이 알고 있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 함. - 위원장 : 학생회 측에 전달이 안 된 것은 실수가 있었다고 함. 자료 전달에 있어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이고, 일부러 주지 않는 것은 아니니 양해하여달라고 함. - (세종)총학생회장 : 2017년 등록금심의위원회 합의사항 중 세종 기숙사 관련사항을 불이행 했으므로, 최근 기숙사 행정관련 실시된 기숙사 합격통보를 철회할 것인지에 대해 위원들의 답변을 요구함. - 위원장 : 2017년도 세종 총학생회장과 협의가 된 부분이라고 함. - (세종)총학생회장 : 2017년도 총학생회장 역시 위 사항에 대해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답함. 합의문이 이행되지 않는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진행 의미가 없다는 불만을 표시하고 퇴장함. - (서울)총학생회장 : ① 자료 준비가 늦어지게 되면 학생위원들이 준비할 시간이 		

줄어든다고 함. 최대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 달라고 함.

② 전달받은 가예산 회계자료를 검토해 보았는데, 2017년도 가예산과 비교하기가 어렵다고 함. 작년도 자료와 비교할 수 있게 가예산 자료를 다시 요청 함.

③ 합의문의 연속성의 문제, 실무위, 소위원회, 학기 중 추가 개최 진행상황을 질의 함.

④ 본예산안과 추경예산안은 언제 받아볼 수 있는지 질의 함.

- **(재무팀)간사** : 추경예산안은 작성 중이고, 본예산안도 추경예산안이 완성이 되어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차 이내에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단과대 회장이 요구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등심위에서 주셨으면 한다고 함.

- **위원장** : 고려하겠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① 홍익대는 등록금 전국 대학 10위, 등록금 의존율 10위, 각종 지표에서 평균 미달이 많다고 함.
 ② 교육비 환원을 사립대학 평균이 180%정도 되는데 그에 훨씬 미달되는 130%정도라고 함.
 ③ 대학 등록금 의존율이 타대학 평균 54%인데, 홍익대는 70%정도이고, 타대학 전임교원확보율 평균은 72.5%이지만, 홍익대는 71.4%이라고 함.
 ④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기본 지표가 되는 항목들인데, 미달이 되는 많은 항목을 고려할 때,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함.
 ⑤ 입학금 폐지가 확정된 것인지 질의 함.

- **위원장** :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는 교육부의 방침이고, 학교로서는 이에 따를 것이라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입학금이 감면되면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지출도 작게 책정되는 것이 아닐까 걱정된다고 함. 등록금은 동결인지, 정책적으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질의 함.

- **위원장** : 대학원 등록금, 외국인 등록금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올릴 수가 있다고 함. 물가상승률, 타대학 동향 등을 조사해 적절한 수준에서 책정될 것이라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등록금이라는 것이 가계수입, 경기상태 등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함. 지난해까지 대학원 학생들도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대학원생들과 외국인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할 자리가 정식적인 기구로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학원과 외국인 등록금도 동결이 옳다고 함.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었으면 한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① 2017년 대비 2018년도 지출부분에서 많은 증액이 있다고

함. 수입면에서는 7억원정도가 증가하였고, 지출면에서도 189억원 정도가 증가하였다고 함. 부풀리기 예산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만, 학생대표들과 논의를 통해 본예산이 나오고,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복지를 위한 경비지출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함.

② 교원증원, 교직원증원, 조교증원, 기사증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였는데, 실제로 늘어난 것들을 보면, 보수면에서 교원보수는 오히려 줄어들었고, 직원인건비는 늘어났다고 함. 학교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임교원을 충원하고 있는데, 오히려 교원급여가 삭감 되었다는 것은 전임교원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함.

- **위원장** : 단과대별로 전임교원 확보를 위해 요청 받은 것을 토대로 작년에 250명 정도를 증원할 계획이었는데, 작년에 반정도만 충원되었다고 함. 250명 충원을 예상하여 예산을 책정했지만, 충원된 숫자가 이에 미치지 못해 집행되지 않은 것이라고 함.

현재 홍익대 교육비환원율은 130% 이상이라고 함. 작년 등심위 당시 120% 정도 돼서 140%를 맞추겠다고 합의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함. 교육비환원율 1% 제고를 위해 19억원이 필요하고, 교육비환원율이 작년대비 현기준으로 7~8%이상 증가했다고 함. 예산집행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학생들에게 예산사용이 되었다는 의미라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비슷한 수준의 다른 학교들과 비교하더라도 낮은 수준이라고 함. 매년 적립 기금 목적으로 200~250억 정도 예산을 잡아두고 있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적립을 하는 것이겠지만, 전국 대학 적립금 1위임에도 학생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다고 함. 학생대표들에게는 중장기 발전 계획이라고 설명은 하지만 시행이 언제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함. 구성원들의 동의 없이 학교만의 목적으로 적립이 되고 있다고 함. 누적적립금도 1위이고, 적립을 적게 하면 교육비 환원율을 올릴 수 있다고 함.

- **위원장** : 간부수련회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설명하겠다고 함. 적립금이 어떻게 사용이 될 것인지 학생대표에게만 구두 설명하겠다고 함. 모든 구성원들에게 구체적인 수치로 말한다는 것이 적정치 않아 보여서 대략적인 계획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함. 현재 종합캠퍼스발전위원회가 출범되었고, 디자인밸리 사업 설계는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감가상각비라는 것이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되어 결론적으로 건축적립금으로 들어가는데, 학생들이 등록금을 낸 만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함.

- **위원장** : 학생들이 낸 등록금의 110% 넘게 실제 학생들에게 쓰여지고 있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사립대학교는 등록금 자원 외에도 국가보조금, 산학협력전입금, 기부금 등 다른 자원이 있으나 환원율지표의 경우 분모가 학생들의 등록금이

기에 지표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 지적함. 100%가 안되는 경우가 문제가 있는 것이며 타 대학비교 낮은 수치라고 함. 중장기발전계획도 중요하지만,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도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함.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고, 학생대표, 관련 부처 구성원들에게 설명이 되었는지가 중요한 요소라고 함.

현재 유학생들도 감당 안 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를 장려하는 학교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함. 2018학년도는 전체 학생수의 1/10이 외국인 유학생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고 함.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많고 그 문제들이 해결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교육측면에서 재고해야할 점이 있다고 함.

- **위원장** :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는 것은 옳다고 함. 학교 학생들에게 보다 큰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함. 외국인 유학생들도 우리학교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계속 노력 하겠다고 함.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방안을 계속 논의 중이고,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계속 논의 중이라고 함. 또한, 국제협력본부를 신설하여 직원들을 멘토로 지정하여 외국인학생들과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함. 유학생들도 학교에 소속감을 갖게 하기위해, 특정강의실을 모임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바도 있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외국인 유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요소들이 더 필요하다고 함. 외국인 학생들도 우리학교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국내 학생들과 외국인 학생들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올해 안에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학교 측이 말한 교원 250명을 증원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 예산안에 반영이 된 것인지 질의 함.

- **위원장** : 교무처에서 단과대학 총원요청을 취합하여, 재무팀으로 자료를 보내 예산안이 편성된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교원확보에 관한 자료전달을 요청 함. 교수를 채용 할 때, 공개 강의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달라고 함.

- **위원장** : 공개강의 제도는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함. 이에 갈음하여 시용제도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함. 시용 중에 있는 교원에 대한 학생들의 강의평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가예산안에 직원인건비(1.7억원)와 조교인건비(4.1억원)가 증액되는데, 작년도 교학협의회에서 다뤄지던 내용들이지만 업무가 많은 부서들은 조교를 더 배치하여야 된다고 함. 건축대학, 미술대학 등과 같이 기사가 필요한 학과들도 총원을 요구함.

- **위원장** : 무조건 인원을 늘리는 것은 예산상 부담요인이 될 수 있어, 실태 파악

이 우선되어야하고, 단과대별로 인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인건비가 증액되면 교육비환원율도 높일 수 있다고 함.

- 위원장 : 외부적인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무분별한 비용지출을 할 수는 없고, 합리적인 비용지출을 해야 한다고 말함.

- (서울)총학생회장 : 특히 조교는 비정규직이라 임금도 높지 않아 예산부담이 적다고 지적함. 교직원부족 문제는 지속적인 문제라고 함.

- 위원장 : 등심위에서 뿐만 아니라 실무위, 교학협의회 등에서도 정확한 사태 파악을 하고 직원 재배치에 대해 고려하겠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작년부터 계속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고, 작년 4차 교학협의회에서 '학장이나 학과장이 자료조사를 통해 교직원 추가채용 요청을 하면 본부에서 심의하겠다' 라고 학교 측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었기 것이 했었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을 촉구한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등록금 수입이 21.4억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증가했는지 질의 함.

- 위원장 : 가예산이기 때문에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고 함. 각 부서에서 보내온 자료들을 취합해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투자 및 기타 자산수입 계정에서 건축기금인출이 작년에는 94.1억이고 올해는 15.2억이며, 건설가계정은 작년에는 79억인데 올해는 14억이 예산에 편성되어있다고 함. F, J, I, P동 리모델링 계획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질의 함.

- 위원장 : 추후에 확인하고 알려주겠다고 함. 제3기숙사 및 세종학군단 등 규모가 큰 건물들이 작년에 완공되었기 때문에 올해에는 많이 책정되지 않았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학생들이 F, J, I, P동 리모델링에 관심이 많다고 함. F동 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 함.

- 위원장 : F동은 올 겨울방학에 공사를 해서 학기가 시작하면 사용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지연되어 여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함. 진행사항은 확인한 후에 알려주겠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각 건물의 리모델링 일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함. 리모델링에 있어서 학생 의견 반영 및 학생들과 논의될 수 있는 장치 등이 작년 등심위 합의문에 있는 만큼 그 기초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함.

- 위원장 : 전체 공청회 보다는 학생대표들과 논의를 하고 의견을 듣겠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법인전입금이 최근 3개년 동안 매해 9억원이었다고 함. 대학 기본역량진단에 법인의 책무성까지 들어가 있는데 또 다시 9억원이 책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함.
- 위원장 : 법인의 책무성 관련 우리대학의 경우, 법인이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함. 교육부의 승인을 받고 있는 것이고,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설명 하겠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자료를 찾아보니 2012년도에는 48억원이 책정 되었다고 함.
- 위원장 : 법인이 전입금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 교육부의 심사 및 승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교육역량진단에서 실제평가지표를 설명 요청 함.
- 위원장 : 교육역량진단평가에 대해 학생대표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감가상각비를 최대한 적립하고 있는 이유와 각 건물에 대한 설명을 서면자료로 받으면 좋겠다고 함.
- 위원장 : 학생대표들에게 설명했던 자료가 있는데 더 보완해서 설명하겠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매년 200~300억을 적립금으로 예산에 배정하고 있다고 함. 교육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이유가 있어야 적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200~300억의 적립 예정금액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 불합리 하다고 함. 등록금 의존율 문제 등 본부와 법인에서 책임질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학생들의 교비로 적립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함. 작년에는 리모델링 비용을 건축기금 및 교비에서 인출되는 것으로 인해 상의가 많이 되었는데, 원칙적으로 건축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건축기금에서 인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함. 이번 가예산에는 건축기금 인출이 배정되어 있지 않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소프트웨어유지비, 이사운송비, 요람제작비 등 관리운영비 부분이 증액되어 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것인지 의아한 부분들이 있다고 함. 학생들을 위한 관리운영비는 증액되는 것이 좋지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는 게 등록금 환원율을 높이는데 있어 좋겠다고 함.
- 위원장 : 요람제작은 단가 상승의 요인이 반영된 것이라고 함. 다만, 올해는 책자로 제작하기 보다는 pdf 등으로 제작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시행하겠다고 함. 이사 비용의 경우에도 F동 집기비품 이전설치에 비용집행이 많이 예상된다고 함.

- **관재팀장** : 작년에 미대가 옮겨갈 때 예상치 못한 비용이 많이 소요 되었고, 금액상 많이 책정한 것은 아니라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 증액 되는 것이 좋겠다고 함.

- **위원장** : 본교는 교육비 환원율의 세부내용면에서 학생들에게 실제사용하는 금액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관련 자료를 요청함.

- **(서울)총학생회장** : 가예산에 졸업전시와 건축전에 6,550만원이 배정되어 있다고 함. 원래 예산에 잡혀 있지 않았던 부분들이 책정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게 미술대학 전시에 1인당 40~50만원이 들지만 지금 금액으로는 1인당 6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이라고 함. 좀 더 현실성 있는 예산이 배정되었으면 좋겠다고 함. 실험실습비도 4.4억 증액되었는데 1인당 책정 실험실습비가 증액된 것인지 질의 함.

- **(재무팀)간사** : 1인당 실습비가 증액된 것은 아니라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우리대학의 실험실습비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체감되지 않는다고 함.

- **위원장** : 요청하는 자료나 요청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주면 다시 검토하겠다고 함.

- **관재팀장** : 일주일 내에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함.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자료들도 있고,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지 한 번에 알 수 없는 자료들도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통해 논의 하는 자리를 가지면 소통도 할 수 있고 자료를 준비하는데 있어 효율적일 것이라고 함. 학기가 시작되면 교학협의회 등도 열리기 때문에 등심위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만 논의되었으면 좋겠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예산과 관련된 것들은 등심위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양해 부탁한다고 함. 실무위 등의 회의를 활성화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함. 논문심사료가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지 않는 이유와 장학금 40억원 증액에 대해 질의 함.

- **(재무팀)간사** : 가예산이고, 장학금에 관한 것은 장학팀에서 보내준 것이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집행율에 대한 지표이기 때문에 최대한 정확하게 예산을 짜

고 집행을 해야 예산안에 다른 요인들이 반영될 수 있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장학재단에서 주는 교외장학금, 인문계장학금은 줄어들고, 예체능장학금은 없어졌고, 지식봉사장학금도 줄어들었다고 함. 이에 대해 설명을 요청 함.

- 위원장 : 확인해서 자료로 주겠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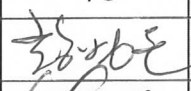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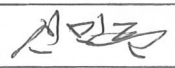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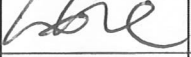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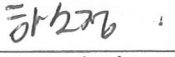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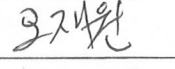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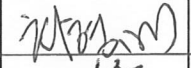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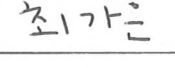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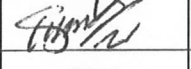
- (서울)총학생회장 : 교외 장학금을 확보하는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함. 거리미술전 및 홍익미술전에 대한 지원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함. 거리미술전의 경우, 지속성의 문제가 있다고 함. 우리학교의 좋은 콘텐츠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지역 사회와의 협력 부분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함. 그러나 거리미술전에 참여하는 단장이나 학생들은 사업자등록증도 내야하고, 지자체에 보고서도 제출하는 등 많은 일을 해야하지만 장학금도 없고, 교내 봉사학점 1학점만 받고 있다고 함. 학교의 긍정적인 콘텐츠가 사라질 위기에 있다고 말하며, 거리미술전을 준비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함. 경비 지원의 문제도 있지만, 전공과목으로 신설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하는 분야이기에 예산안 배정 혹은 다른 방안 검토를 요청함.

- (서울)총학생회장 : 동아리연합회에서 D동이 동아리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청소 용역을 폐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함. 근로 장학생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함. D동을 주로 사용하는 동아리에서 이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고 함. 학생들이 많은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만큼 위생 청결이 보장되는 좋은 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함. 미화노동자 해고에 대한 반대는 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이며 해고철회를 요구한다고 함.

- 위원장 : 등심위에서 단과대별로 설명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 고려하겠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필요한 경우는 사전에 요청 하도록 하겠다고 함.

- 4차 등심위는 2018.01.29.(목) 3시 서울캠퍼스에서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폐회를 선언함.

	직위	성명	서명	직위	성명	서명
참석위원	위원장	황 병 돈		위 원	신 민 준	
	위 원	고 경 호		위 원	하 소 정	
	위 원	김 중 인		위 원	오 재 원	
	위 원	최 형 배		위 원	최 가 은	
	위 원	심 재 익				
참석현황	참석대상	9명	참석	9명	불참	0명
작성자	재무팀 간사 이승용	작성년월일		2018.01.25		